

홈 : 뉴스 : 전국 : 전북

## [대학탐방/군산대학교]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대학을 꿈꾼다

대학운영 철학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2015년 10월 18일 (일) 11:16:48

조판철 기자 ✉, \$+...-... : \$ \*) % \*



U 군산대학교 전경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오늘날 한국 대학들은 전환기적 도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의 대학운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만큼 구조적이면서도 광범위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입학자원 감소, 교육 패러다임 변화, 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변화, 신세대 학생 의식과 성향 변화 등 대학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 대학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총 197개가 있다. 그 가운데 국공립대학이 31개, 사립대학이 165개로 약 80%를 차지한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 동북아의 중심 새만금과 함께 지역 중심대학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는 지역 제일의 특성화된 국립 군산대학교를 찾아 전북지역 대표적 강소대학으로 꿈히는 군산대가 '작지만 강한대학'의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고 탄탄한 바탕 아래 실력을 갖춘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감축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산학협력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리 대학이 구축 중인 산학협력모델은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선순환형 모델이다.

이외에도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전학과를 대상으로 교육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학인증 등 외부 인증을 받는 학과를 제외한 전학과가 KS-Edu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 받고 있다. KS-Edu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고, 수업준비에 대한 열정도 높아졌다.

아직 취임 2년이 못된 기간이지만 그동안 우리 대학이 유치한 중요한 국책사업이 매우 많다. 연구장비엔지니어링양성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발명인터뷰 IP사업화지원사업,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 연구장비엔지니어 양성사업,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산업현장기술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실험실안전기반조성사업, 우수메이커사업,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학교기업지원사업, ICT융합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테크숍구축지원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174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신규로 확보했다. 대학의 동력이 그만큼 증대된 것이다.

■) 군산대 총장으로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수요자라면 제 1대상이 학생이다. 우리 대학의 핵심 키워드는 산학협력과 특성화이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말로 수렴된다.

우리 대학교육 최고의 목표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KS-Edu 프로그램이라는 인증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참여학과 교수들에게 업적평가 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현재 52개 학과(부) 중 50개 학과(부)가 참여하고 있다. 거의 모든 학과가 이 시스템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여러 교수님들과 고민한 끝에 우리 대학이 양성하려는 인재상을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실무형 미래인재”로 삼았다.

우리 대학은 기업 및 산업체와의 소통을 중시한다. 대학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대학이 양성한 인재를 동력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면, 그것이 지역의 성장으로 직결된다. 또한 지역의 성장은 우리 대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수시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과정도 수정하고, 학생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그 일례가 기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해 14가지 조항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인성 액션 플랜이 있다.

그 외에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LINC)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대다수 산학협력이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대학은 인문대학이나 사회대, 예술대 등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구성원의 80%가 링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수평가 시에 산학협력 실적을 주요 평가지표 중의 하나로 삼았더니 교수 참여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A wide-angle photograph of the Seomang Campus of Kusan University. The building is a large, modern structure with a prominent glass facade and a blue sign on the right side that reads "Kusan National University Seomang Campus". The building is surrounded by greenery, including trees and grass. In the foreground, there is a road and a small sign that says "한식 뷔페" (Korean Buffet). The sky is clear and blue.

\$\$\$ = 333 - #1' &\*!3/- °+) =\*!3/ = .0%(!3.%- \$) ( %4\*+ .. ) .. ' = = = =

대답을 끝으로, 이제 대학은 사회와의 융합 차원에서 산업적 마인드를 높여야 한다. 결국 유연한 사고로 개방성, 수용성을 갖고 사회와 융합하는 대학만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